

10만 원 안쪽, 1m 천 한 장으로 만드는 흡음패널

천 → 틀 → 멜라민 블록 → 공기층 → 벽. 음향 완제품 대신 흔한 재료로, 방 안에서 도는 울림을 줄이는 패널 한 장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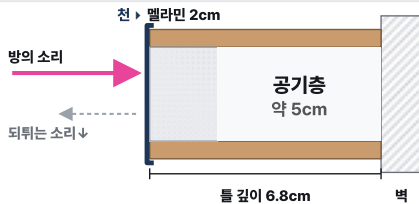
완성 예상 · 앞에 보이는 천 가운데 약 83cm — 그림의 중요한 부분은 가운데 75cm 안에

예상 총액 · 1장 · 배송비 포함

88,400 원

① 프린트 천 100×100cm	32,000
② 멜라민 블록 100개 × 2	17,400
③ 각목 80cm × 4	27,000
④ 다이소 부자재 7종 (매장가)	12,000

완성 약 83×83cm · 두께 약 7cm · 무게 약 3kg대(계산값)
공구: 십자 드라이버 · 커터칼 · 망치 · 줄자 · 벽 못·핀은 벽에 맞게 따로



단면 · 블록은 천에 닿게 놓고, 뒤는 비워 둔다

이 구조가 하는 일

천	소리를 통과시키는 걸로
멜라민	소리를 열로 바꿔 줄인다 — 말소리·박수 같은 중·고음
공기층	벽에서 띄울수록 더 낮은 소리까지 잡는다
한계	2cm 멜라민은 저음(쿵쿵)은 거의 못 잡는다

준비물 네 묶음 규격만 맞으면 어느 가게든 된다 · 버튼은 우리가 확인한 예시

① **프린트 패브릭 포스터**
100×100cm 1장 · 내 그림 업로드
· 붙어서 숨 통하는 천

32,000 원

29,000 + 배송 3,000 · 마플

사러 가기 ↗

검색어 **패브릭포스터 100x100**

② **멜라민 블록 (매직블럭)**
5×9×2cm 100개 1봉 × 수량 2 (약 140개 씩)

17,400 원

1봉 8,700 × 2 · 무료배송 · 11번가 최저

사러 가기 ↗

검색어 **매직블럭 대형 100개**

③ **각목 (재단 주문)**
28×68mm · 80cm × 4개 · 6.8cm 면을 세워 쓴다

27,000 원

6,000×4 + 배송 3,000 · 11번가 요요몰

사러 가기 ↗

검색어 **각목 사이즈재단** · 단면 28×68 확인

④ **다이소 부자재 7종**
타카(심 포함) · 타카심 6mm · L자 평철 4개 · 목재 나사 12·16mm · 만능 본드 120g · 액자걸이 · 노끈 3mm

12,000 원

매장 가격 · 타카 5,000 · 본드 2,000 · 나머지 각 1,000

다이소를 ↗

품목별 링크는 QR 페이지

만드는 순서 1 → 2 → 3 → 4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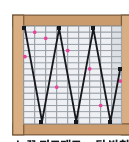
1 틀 짜기

6.8cm 면을 세워 바람개비로, 이음면 본드, 뒷면 모서리 L자 철물·나사. 대각선 두 길이를 같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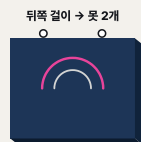
2 천 씌우기

천을 뒤집어 펴고 철물 쪽이 위로 가게 틀을 올린다. 감아서 뒷면에 타카, 모서리는 선물 포장처럼



3 블록 채우기

천에 닿게 빈틈없이, 블록끼리 본드 점. 바로 뒤 틀 벽에 노끈 지그재그 타카



4 걸기

하루 말린 뒤 뒷면 뒤 액자걸이 2개. 약 3kg대를 버티는 못·핀 2개

방음이 아니라 흡음

방 안에서 도는 울림을 줄인다. 벽 너머로 새는 소리·옆집 소리는 못 막는다. 그건 차음(벽을 무겁게, 틈을 막는 일)이다.

매직블럭 ≠ 인증 흡음재

음향용과 같은 멜라민폼 계열을 흡음재로 쓰는 방법이다. 흡음·난연 인증 제품은 아니다. 집은 방염 의무가 없다. 방염 대상 영업장(다중이용업소 등)은 방염 검사 받은 흡음재를 쓴다. 열 가까이 두지 않는다.

어디에 걸까? 거울 한 장

듣는 자리에 앉고, 다른 사람이 옆벽에 거울을 대고 움직인다. 거울에 스피커가 보이는 자리가 소리가 처음 되튀는 곳이다.



품목별 구매 버튼 · 다른 가게 검색 · 최신 가격 → hammedia.co.kr 음악·오디오별

더 싸게 찾을 때 **매직블럭 대용량** **멜라민 스펀지** **각목 사이즈재단** **패브릭포스터 주문제작**

근거 — 음향용 멜라민폼 두께별 흡음(20mm aw 0.45, 125Hz는 60mm도 0.25 · 매직블럭 측정값 아님) acousticindex.com · 흡음과 차음 tornex.co.kr · 방염 대상 easylaw.go.kr · 가격 2026-09-23 소핑몰 화면. HAM MEDIA가 이 패널의 효과를 따로 측정하지는 않았다.